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October 25 2024 Vol. 936

"하나님께서 감당시키신 일, 믿음으로 완수"

영 김 연방하원의원 인터뷰
입법 활동 1위 비결은 '한 발 더 다가감'

영 김 연방하원의원이 캘리포니아 제40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한다. 공화당 소속인 영 김 의원은 재선 의원임에도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중 입법 활동 1위에 오르는 등 매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인 의원으로서 한미동맹과 북핵억제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75만 건의 직간접적인 민원상담을 통해 한인들 및 지역주민들의 현안들을 파악하고 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법안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한인 의원으로서 미 의회에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영 김 의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의원으로서 40지구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창구를 통해 듣고 있는가.

도어-투-도어를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일이 방문한 곳이 지금까지 50만 가구 정도이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전화로 다가가는 경우도 있다. 웹사이트를 통한 민원이나, 문자메시지 등까지 포함하면 총 75만 가구와 직접 소통했다. 김대원 기자

➔ 3면에서 계속



영 김 연방하원의원.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연방하원의원으로 지난 4년간 3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전체 하원의원 중에서도 입법활동에서 탑10 안에 들고 있다. ⓒ기독일보

사고

"회복" 제3회 위브릿지 컨퍼런스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위 브릿지(We Bridge)사역을 하고 있는 본지는 올해 "Restore Flesh and Soul"이라는 주제로 '제3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를 11월 10일(주일)~12일(화)까지 빅베어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 기도원(32900 Conifer Camp Rd, Running Springs, CA 92382)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합니다.

본지와 위 브릿지 기획팀이 주관하고,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 박 목사)가 기획한 이번 행사는 미자립교회 지원과 목회자의 영적 재충전과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이종용 목사(코너스톤 교회), 고광선 목사(한길교회), 김귀보 목사(달라스 큰나무교회), 곽부환 목사(한마음제자교회), 강태광 목사(월드웨어USA), 국윤권 목사(충현선교교회), 써니 킴 목사(LA씨티교회), 유혜연 선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강의와 설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교회, 큰나무교회, 감사한인교회, 한길교회, 한마음제자교회, 충현선교교회, LA씨티교회, 웨스트힐장로교회, 토렌스조은교회, 시애틀형제교회, 위브릿지교회 및 BTS 솔라 디자인, 센터메디컬 그룹, TRINITY MS, 월드쉐어 USA 등이 후원합니다.

문의: 213-739-0403

1년 연봉 50만 달러인 2세, 그의 꿈은 선교사

엑스플로 74' 50주년 기념예배

'엑스플로(EXPLO) 74' 50주년 기념예배가 Soon Movement Global(KCCC 나사렛형제들) 주관으로 20일 오후 4시에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엑스플로 74는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5.16광장(현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한국 기독교의 부흥 대성회로 한국 기독교의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의 부흥 대성회이다. 엑스플로 74는 한국 CCC 창립자 김준곤 목사에 의해 열린 민족 복음화를 위한 대형 전도 집회로 알려졌다.

이날 설교를 한 오윤태 목사(순무브먼트글로벌)는 "엑스플로 74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과 비슷하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세지를 듣는 것이고 변화를 입는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되었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 2면에서 계속



'엑스플로 74' 50주년 기념예배가 Soon Movement Global(KCCC 나사렛형제들) 주관으로 20일 오후 4시에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기독일보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런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GBC 미주복음방송
감사선교재단 (TMF)
기도를 통한
목회자 영성회복
2차 영성 회복 기도회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
감사선교재단 이사장
미주복음방송 전 이사장
참 가 신 청
감사한인교회 주차장 (11/11 11:00 AM) 점심식사 후 출발!!
감사한인교회 기도원
DATE 11- 13 NOVEMBER 2024
TRAVELLER YOUNG GIL KIM
여정코스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의 여정 출발!!
▶일정: 2024.11.11-11.13 (2박3일)
▶대상: 현역 담임목사
▶참가비: 무료 (숙식제공)
▶성경, 세면도구, 침구(슬리핑백)
목적
"증기 기관차가 그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 무거운 짐칸들을 이끌고 나아가기란 불가능하듯, 목회자 또한 자신의 영적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성도들을 이끌고 전진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목회자들이 모여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영적 동력을 얻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더욱 힘차고 열매 맺는 목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2박 3일 기도회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속에서 목회자 개인의 영적 회복은 물론, 그들이 이끄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관: 미주복음방송 & 감사선교재단(TMF) | 문의: 714-484-1190

선교사자녀 장학 기금 마련 골프대회 성황리에 마쳐

선교사자녀 장학생 모집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14일(월) 로스코요테 컨트리 클럽에서 제5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OC연합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14일(월) 로스코요테 컨트리 클럽에서 제5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장로협의회, OC한인상공회의소, 한미지도자협의회, 갓블레스미션 코리아 등 지역사회 각 단체와 기관들이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모금 행사에 함께했다.

저녁 만찬과 뱅킷에서는 신용 회장의 사회로 1부 감사예배를 드렸다. 설교를 맡은 OC 증경이사장 신원규 목사(좋은마을교회 담임)는 선교사 자녀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연합회를 격려하고 골프대회 선수들에게는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됨을 높이 칭찬했다.

2부 순서는 증경 이사장 윤우경 권사가 사회를 맡아 연합회의 역사를 소개하고 증경회장단과 현 임원진이 나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장학금을 받은 선교사자녀들의 소감과 감사인사 영상을 함께 보고, KWMC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를 초대해 선교사의 헌신과 선교사 자녀들의 고충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3부 순서로는 이사장 민김 권사와 회장 신용 집사의 사회로 골프대회 시상과 경품추첨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여 챔피언, 남여 장타상, 남여 근접상, 최다 점수상, 베스트 드레서상 등 다양한 분야의 시상이 있었다. 또한, 연합회는 그 동안 연합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증경회장 윤우경 이사와 증경회장 신동직 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올해는 경품 추첨을 위해 라플을 판매하는 대신, 참석자들에게 1장의 라플을 주고 연합회가 준비한 경품을 추첨으로 제공했다. 취지에 맞게 신선했다는 반응과 재미와 스릴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으로 엇갈린 가운데 뱅킷에서는 라플을 위해 준비한 비용을 후원하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선교사 자녀 장학생 모집은 연합회 홈페이지(www.ockca.org)에 게시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메일(ockca1@gmail.com)로만 접수한다. 시상식은 12월 9일(월) 저녁 5시에 은혜한인교회 친교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연합회는 OC인근지역의 기독교평신도들은 교단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첫번째 토요일 조찬기도회와 교회연합성가제, 말씀집회 등 기독교 행사를 개최하며 함께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김민선 기자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 **이메일 주소**: ockca1@gmail.com

➔ 1면 기사 〈1년 연봉 50만 달러 ...〉에 이어서

이어 "액스플로 74 이후에 2010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자들이 많이 온 시기라 할 수 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민을 왔고 많은 2세, 3세들이 자라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라면서 "한국교회의 특징은,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우리만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방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0년 로잔 컨퍼런스에서 다뤘던 주요 선교의 흐름은 이제 서구 중심의 선교시대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민세대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시대가 열리고 이들을 통해 선교가 확장되고 앞으로 이들이 주가 된다는 것"이라면서 "올해 서울에 있었던 로잔 컨퍼런스에서 서울 서약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교회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고, 제자화는 거룩과 선교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누고 싶다. 여러분의 헌신이 2세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단체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학생 사역을 통해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순장으로 삶을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뤄지는 일들과 50년 전의 할머니의 기도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어제 2세 변호사를 만났는데, 1년 연봉이 50만불이라고 한다. 그는 풀타임으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재미없는 변호사 일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라며 "2세들이 자기의 성공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2세들의 수준이고, 여러분 1세들 사역의 열매이다. 여러분은 2세 교육에 성공을 했고 그들의 신앙은 깊다"고 했다.



오윤태 목사 (Soon Movement Global)

송정명 목사는 축사에서 "50년 전에 한국 기독교가 28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을 때 수많은 이들이 이 대회에 참석을 했다. 여의도 광장뿐 아니라 한국에 부흥을 일으킨 큰 사건이었다"면서 "하나님께서 엑스플로 74에 주신 음성으로, 열방을 품으라는 말씀이 2세들을 통해 맺혀져야 한다. 2세들의 사역을 위해 계속 합심해 기도하자"고 했다.

이날 이성우 목사(크리스천헤럴드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엑스플로 74에 참여했던 성도들과 관계자들의 영상 간증이 있었으며, 특히 그날의 부흥을 다시 이어보자는 마음으로 참석자들이 합심해 기도하기도 했다.

Soon Movement Global의 KCCC 나사렛형제들은 매월 둘째주 오후 5시에 윌셔크리스천교회에서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다. 한편, 2024 유스 하이얼 컬링 컨퍼런스가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포모나에 위치한 쉐라톤 페어플렉스 호텔 &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윤태 목사,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 샘신 목사(샘커뮤니티교회) 등 전문가 10여 명이 강사로 서게 된다.

2024 유스 하이얼 컬링 컨퍼런스 문의: 818-314-6643(김인화 간사), (ENG) 213-247-7096(오윤태 목사)

한미실버클럽, 가을 야외 단풍놀이 여행 준비



한미실버클럽이 가을 일일 야외 단풍놀이 여행을 준비했다.

11월 7일(목) 오전 8시 30분에 LA 동부 장로교회(4270 W. 6thSt. L.A CA 90020)에서 출발한다.

여행장소는 달이 뜨는 치유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오하이밸리(ojaivalley)와, 카시타스호수(casitas)이다. 오하이밸리는 캘리포니아의 세도나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계곡 마을이며, 카시타스 호수는 1984년 LA 올림픽 조정경기가 열렸던 장대한 호수이다. 주변에는 단풍나무와 수목의 아름다움이 만수와 어울려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에 좋은 곳이다.

점심은 골든 코랄 부페식당이 예정되어 있으며, 여행경비는 $120이다.

주최측은 유명 가이드와 함께 하는 단풍여행에 많은 참석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은 선착순 50명이며 문의는 강정구 회장(213 604 0476)에게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 느껴"

-주로 제기되고 있는 공통된 민원들이 있다면.

생활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세금이 너무 과중하고, 전반적으로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다. 특히 가스(Gasoline) 값에 대한 불만이 큰데 이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갤런당 판매세만 부과하는 대부분의 주들과 달리 소비세와 판매세를 모두 부과하는 이중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주(캘리포니아주)에서 2017년에 제정된 'Senate Bill 1'(도로보수 책임법)으로 인해 2027년까지 매년 7월1일이면 정기적으로 가스값이 오르게 돼 있다. 때문에 현재 가주 의회나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가스값 인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가족들을 초청하고 싶은데 비자가 안 나와서 고충이 있다 거나 고용하는데 있어서 비자 발급이 늦어지는 등의 이민국과 관련한 민원들이 많다. 지금까지 거의 6천 개의 민원상담 케이스를 직접 해결해 드렸고, 이 민원상담 창구를 통해 연방기관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2천5백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다.

지역 범죄와 관련해서는 처벌이 미미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다. 상가를 상대로 한 범죄는 제가 2021년 초선 의원일 때부터 가장 많이 들어왔던 문제다. 직접 상가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리 경찰에 신고를 하고 리포트가 작성되고 케이스가 만들어져도 사건해결이 안된다는 공통된 불만이 있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 관할 경찰서, 지역 보안관(county sheriff),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서로 정보 공유가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 '조직적 상점 범죄에 대한 연방 조사 개선법'(Improving Federal Investigations of Organized Retail Crime Act)이다.

또 민원들 중에는 불법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들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포괄적 남부 국경 전략법'(Comprehensive Southern Border Strategy Act)을 발의했다. 북쪽 국경에 관한 보안은 2016년도에 벌써 법으로 제정돼 강화됐다. 현재는 남쪽 국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심각한데 이제는 카르텔 조직을 대담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국경문제 현안이 다르다. 어떤 곳은 장벽을 마저 건설해야 하고 어떤 곳은 카메라 등의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 곳들이 있다.

- 매우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차례 보도됐다. 지난 4년간 입법 시킨 법안들 중 몇 가지를 꼽는다면.

4년 동안 제가 발의해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36개이고, 이 중에 15개는 벌써 대통령 서명을 받아 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중 참전용사의 생활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법안도 있고, 팬데믹 때 연방정부차원에서 PPP론을 진행할 때 갑자기 너무 많은 신청서가 몰리다보니 제대로 검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낸 법안도 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도 제가 늘 염두해뒀던 것이다. 2022년에 종료된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8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미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 북한인권특사 임명, 탈북 난민 보호와 재정착을 위한 유엔 난민기구와의 협력, 비정부기구의 대북 방송 활동 지원 등이 주요 내용들이다. 이 법안은 현재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2024년 5월 16일에 가결됐다. 특히 미주에 있는 실향민들과 이산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깝다. 이들이 한번이라도 안아보기를 원하는 북한 가족들과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탈북민들도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할 이들이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해 국제기구로부터 우대를 받지 못하게 하는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s Not a Developing Country Act' (H.R. 1107)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서 세계은행에서 돈을 거의 이자 없이 빌려와서 주변국들에게 회수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돈을 갚지 못할 주변국들에게 100년 동안 그 나라를 개발할 권한을 요구하는 등 중국의 주변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가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the Indo-Pacific) 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가능했던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문제, 중국 견제, 역내 동맹 강화 등 주요 외교 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원회다. 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외교 정책은 전 세계 인권 증진과 자유에 가치를 둔 국가에 대한 지원, 동맹국과의 자유 무역 강화 등에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이 도어-투-도어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는 인턴들의 사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독일보

"제가 감당 못할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저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고자"

-의원들에 대한 입법평가 기관에 의해 가장 초당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비결이 무엇인가.

저도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52명의 가주 연방 하원의원 중에 제가 1위였다. 미국 전체 하원의원 중에서는 6위에 올랐다. 비결은 관계성이라고 생각한다.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다.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하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하다. 아무리 하원에 공화당이 우세하다해도 우리끼리 법안을 통과시키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초당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초당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민주당 하원의원)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그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다가가서 친분을 만들고 교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안을 발의할 때 일단 제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어준다. 법안 발의를 앞두고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이 담긴 플래시카드를 건네주고 공동 서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하원에 입장하는 문이 총 3개인데 저는 일부러 민주당 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초당적인 입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

평소 북핵 문제 및 북한 인권 문제 등에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왔다.

김정은 정권은 미사일 발사라든지 ICBM 시험 등으로 계속해서 공격성을 높이고 있고, 우리의 적대국들과 더 강한 유대를 맺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적 제재를 준수하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억지력을 높이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방송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고통이 누구 탓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를 하게 된다면 북한 정권이 먼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을 보여준 후에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 없이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원의원 3선 도전에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린 결심 같은 것이 있는가.

10년 전 처음 주 하원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됐을 때 기도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7시간을 운전을 하고 새크라멘토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받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기억이 난다. 주 하원의원으로 있을 때 지역구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다.

지금 워싱턴 D.C.에 가서도 그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다. 저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초심을 유지하고 자만하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혹여나 이렇게 많은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것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거나 거기에 만족할 것을 염려해 항상 지혜를 구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의정 활동 중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초심을 잃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성경 말씀에 의존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분명한 신앙적 푯대를 가지려고 한다. 이민자로서 자녀 4명을 키우고 이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아 할머니가 되었는데, 남편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로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힘든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끔 생각해 보게 된다. 워싱턴 D.C.는 항상 대결하고 논쟁하는 험한 곳이다. 힘들 때가 많다.

그렇지만 한인으로서 미 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라 믿는다.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동안 지치지 않고 분명한 푯대를 가지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한미 관계 증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있는 국제관계위원회가 다뤄야 할 여러 가지 현안이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 등 미국이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사안들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앉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자 한다. 어렵지만 감당하겠고, 또 내가 감당 못할 일을 맡기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가고자 한다.



“천국은 죄를 원하는 이들에겐 끔찍한 곳”

새생명비전교회, 안선홍 목사 초청 로마서 강해 목회자 세미나



안선홍 목사 초청 로마서 강해 목회자 세미나가 10월 21일(월)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새생명비전교회 EM예배실에서 진행됐다. 앞줄 왼쪽에서 다섯번 째 안선홍 목사, 여섯번 째 강준민 목사. ⓒ기독일보

새생명비전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안선홍 목사(애틀랜타 섬기는교회 담임)를 초청해 창립 15주년 기념 로마서 강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선홍 목사가 2009년 10명의 성도들과 함께 애틀랜타 섬기는교회 웹사이트(http://www.skeca.org)에 가면 그의 강해설교들이 책별, 각 책의 장별로, 구절 별로 올라와 있다. 로마서 강해만 100편이 훌쩍 넘고, 에베소서는 20편, 빌립보서는 22편, 창세기 80편, 80편이 넘는 출애굽기, 등 수많은 강해설교 리스트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 성실하게 책상 앞에서 말씀을 준비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주일예배에서 “구원을 증거하라”(로마서 8/28-30)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이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 응답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저희 아버지(안상진 장로)는 작년 담낭암이었다가 절제하고 미국에 오셨는데 전이되어서 두 번째 항암치료를 받으셨다.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는 것,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평생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께 귀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

“강준민 목사님은 제가 책으로만 알던 분이시다. 어느 날 제게 강준민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다. 그날보다 더 놀랐던 아침은 없다. 강 목사님과 식사하며 나눈 시간들,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구원받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며 “구원은, 오해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주제이다. 구원은 죄 용서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메시지이다. 구원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영생이란,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며, 여기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천국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는 마치 금연식당이 흡연자들에게는 끔찍한 곳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천국은 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곳이다. C.S. 루이스는 ‘모기들의 천국은 인간의 지옥이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닫혀 있다’라는 말을 했다.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곳,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곳을 좋아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방법에 주목했지,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성경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천국을 가져오는 것이 되길 바란다.”

또한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구원은 순종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21일(월) 새생명비전교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EM 예배실에서 목회자를 위한 로마서 강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안선홍 목사는 ‘어떻게 집중력 있게 설교를 끌고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인용하는 일도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독서를 통해 보완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뜨거워야 할 거 같다. 제가 전달하는 말 자체에, 제가 불이 붙으면, 성도님들의 집중력이 좋아진다. 저는 그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인 거 같다. 잘 준비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부수적인 것 같고, 내용 자체에 빛이 있으면 성도들도 느낀다. 제가 설교에 몰입하면 회중들도 막 빨려 들어온다. 설교할 때도 회중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진정성을 계속 유지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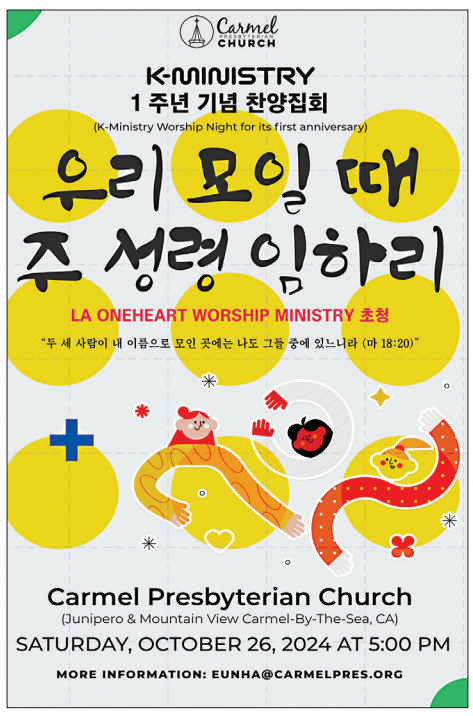
이어서, 그는 교회를 개척한 후 15일 두 끼, 열흘 세 끼씩 금식하며 40일 동안 아침예배로 로마서 강해를 3번에 했다며 그가 정리한 로마서 아웃라인을 중심으로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설명한 뒤, 로마서 5장, 8장의 설교 실례를 통해 설교 준비에 대해 나누었다.

이날 세미나는 강준민 목사의 인사와 식사 및 교제로 마루리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그의 로마서 강해에 대해 “지중해식 건강식”같다며, “그의 메시지의 힘은 진정성에 있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라고 평가했고, 강준민 목사는 섬기는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그의 설교를 들어볼 것을 추천했다.

주디 한 기자

원하트 4년 만에 몬트레이 찬양집회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북가주 몬트레이 지역 연합 찬양집회에 예배인도로 함께한다.

이 집회는 10월 26일(토) 저녁 5시, 몬트레이에 있는 카멜장로교회(Carmel Presbyterian Church)에서, 한인 예배자들을 위한 찬양집회로 열린다. 집회를 주최하는 K-ministry는 지역 한인들의 연합을 위해 세워진 찬양모임으로, 올해로 1주년을기념하는 예배에 원하트 미니스트리를 초청하게 되었다. 집회의 주제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이며, 찬양으로 하나되어 은혜로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번 찬양집회는 몬트레이 및 산호세 지역까지 지역 교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하트 미니스트리의 몬트레이 지역 방문은 코로나 이후 4년만으로, 이 집회를 위해 릴레이 금식과 새로운 찬양으로 준비하는 등 집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남가주에서 찬양과 문화사역을 통해 교회 연합 활동을 돕고 작은 교회를 지원하는 건강한 초교파 단체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편,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11월, 기독일보가 주관하는 ‘위브릿지 컨퍼런스’에 지난 1회와 2회에 이어 다시 한번 기획으로 함께한다.

위브릿지 컨퍼런스는 어려움을 겪는 남가주의 작은 교회들을 돕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시작됐으며,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협력을 도모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사제공: 원하트미니스트리**

몬트레이 지역 연합 찬양집회
일시: 10/ 26(토) 저녁 5시
장소: Carmel Presbyterian Church
주소: Junipero & Mountain View Carmel-By-The-Sea, CA 93921
연락처: EUNHA@CARMELPRES.ORG
원하트 홈페이지: www.one-heart-usa.com/
페이스북: facebook.com/one-heartministry
인스타: instagram.com/myone-heartministry/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Lic#854389
2024년 대박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25 YEARS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BEST PRICE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www.btssolardesign.com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센터메디컬그룹

가을 맞이 조끼 무료나눔 행사



+ 모자와 조끼 같이 드려요

선착순 행사 | 조끼수량 소진시 조기 마감
만 65세 시니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시니어라이프를 함께 즐기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South Bay 토렌스 샬롬교회
20050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11월 **13일** 수요일 오전10시

OC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점
12372 Garden Grove Blvd #B, Garden Grove, CA 92843
11월 **15일** 금요일 오전10시

LA 엘에이 일정 공개 예정
COMING SOON!

문의전화 ——— 오전9:00 - 오후5:00
(888) 847-3098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김영호 통일부 장관, 극동방송 조찬 강연 北 억류 선교사 지원 촉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화) 오전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목사와 장로 40여 명을 대상으로 조찬 강연을 진행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고, 교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 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교계에 억류자들을 위한 기도회 개최,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 기독교 단체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이다. 특히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어느덧 억류 10년을 맞이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월 20일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을 맞아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일에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김국기 선교사 구금 10년째를 맞아 무조건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또다시 발표했다.

이날 김영호 장관은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는 종교계의 역할을 평가하고,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김영호 장관은 "통일은 경제적 이해득실 문제 이전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도덕적 의무"라며 "이에 기초해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청년들을 위한 통일 프로그램에 교계와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강연 이후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통일 독트린과 정부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특히 북한의 무인기 소동에 따른 국민 불안 우려에 대해 장관은 "정부와 군이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고,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대웅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강연하고 있다. ⓒ통일부

"트랜스젠더주의, '매우 여성혐오적' … 여성 피해 커"

트랜스젠더 이념은 '매우 여성혐오적'이며, 기독교인은 여성의 소중함과 여성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보수단체인 '포커스 온 더 패밀리'(Focus on the Family) 글렌 스탠튼(Glenn Stanton) 대표는 폴란드에서 열린 기독 의료인 컨퍼런스에서 "성소수자 운동이 너무 발전해서 이제는 '여성에 대한 반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스탠튼 박사는 "더 나아가 '성 정체성의 내부의 논리적 불일치'와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간의 불화로 이어진 깊은 분열로 스스로를 잠식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했다. 그는 "트랜스젠더 정치는 남성이 여성에게 어떻게 될지 말하는 새로운 가부장제다. 스테로이드는 어떤 의미 있는 감각에서도 여성성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여성혐오"라고 했다.

이어 "남성이 체육관이든 레즈비언 바이든 여성 공간에 들어가면, 여성에게는 모든 것이 바뀐다. 여성성은 보호하고, 보살피고, 소중히 여기고, 양육해야 하는, 매우 특별한 인간적 특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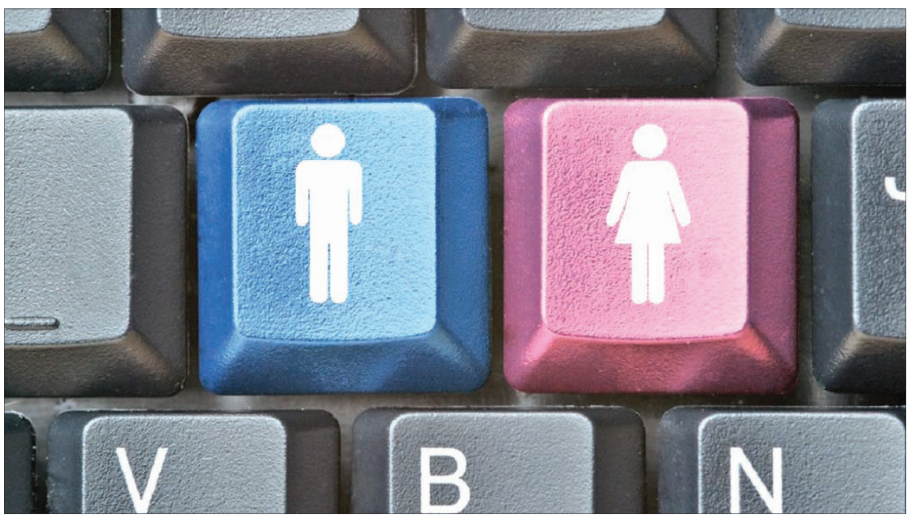
스탠튼 박사는 '트랜스젠더 이념'이나, '소위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 교도소에 배치하는 것'과 같은 해로운 정책에 도전하는 페미니스트와 여성에게 공개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적인 위협의 수준이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그는 "여성 교도소에 배치되기 위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은 체제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고 여성들은 그것에 대해 불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은 최악의 가부장제다. 감히 말을 하려는 여성들은 트랜스젠더 활동가들로부터 취소되거나 죽음이나 성폭력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전적 자유주의는 '아빠, 당신이 하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죽을 때까지 수호하겠어요'였는데, 지금은 사라졌다"며 "취소당한 경험이 내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램프에 담긴 지니를 다시 꺼내서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들기는 힘들 것"이라며 "그동안 상처받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규칙이 끊임없이 바뀌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말하고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압력에 저항해야 하며, 동시에 성적 불쾌감으로 진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정말 고통받고 정말 연민이 필요한 성적 불쾌감을 가진 사람들에서, 사람들이 가장하는 상황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지속될 수 없다"고 했다. 스탠튼은 회의 초반 "'유니섹스 문화'가 사회에 강요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와 성적 유동성은 이제 내가 아는 종교적 근본주의보다 훨씬 더 근본주의적인 종교적 교리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가 성과 젠더를 분리함으로써 여기까지 왔다. 이제 해결책은 성적 취향과 젠더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직장과 다른 곳에서 '선호하는 대명사'를 채택하라는 이들의 압력에 대해, 우리는 그것에 따라가는 것을 어떤 경우에라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발표자들은 성별 자기확인법과 소위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적 자유에 대한 과제를 언급했다.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펠릭스 뵐만(Felix Boellmann)은 얼마 뒤 독일에서 성별자기확인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적 성별을 변경하는 데 연령 제한은 없지만, 14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할 경우 개입해 부모의 결정을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뵐만은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었다. 그런데 이 법률에 따라 그것이 뒤틀렸다. 입증 책임은 더 이상 반대편에 있지 않다. 정의에 따라 변화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곳은 법원이다. 원래 우리가 가졌던 것(부모의 권리)에 비하면 매우 낮은 기준"이라고 했다. 뵐만은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가슴 아픈' 사건을 공유했다. 한 부모가 성전환을 거부한 후 자녀를 보호 처분에서 빼내기 위해 끝없는 법적 싸움을 하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변호사인 올레 그람스타드 옌센(Ole Gramstad Jensen)은 그의 나라에서 금지한 소위 전환 치료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여기에는 '기도'도 포함된다. 그는 "16세 이상의 아이가 어떤 성적 경로든 찾을 수 있지만 이성애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성별과 성 정체성에 관해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들은 신체를 바꾸는 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마음은 훨씬 덜 침습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꾸는 데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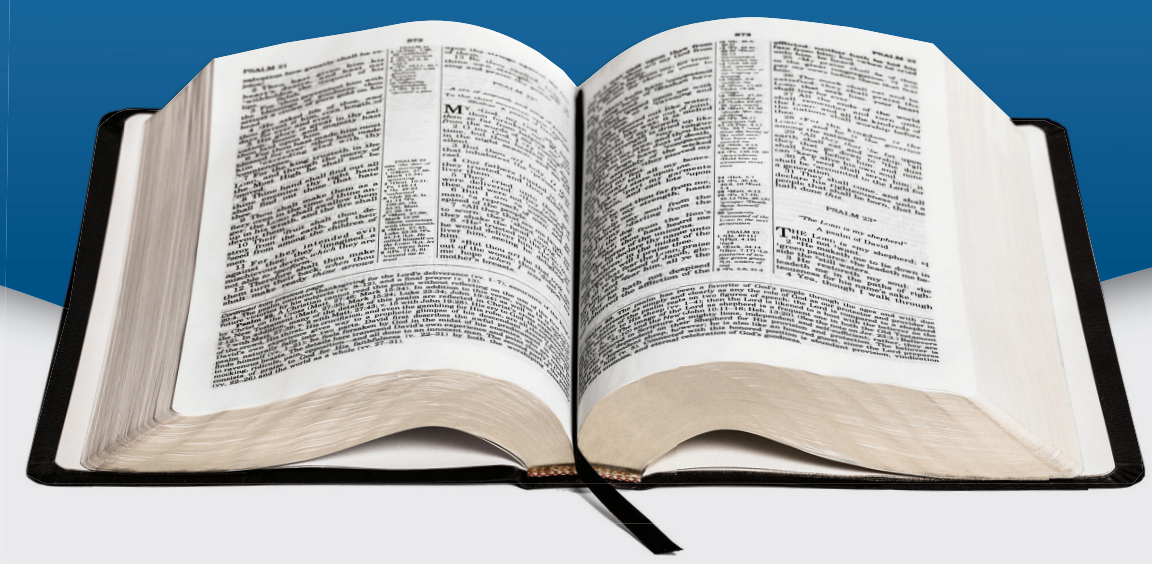


ⓒThinkstock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Vermont Ave
Menlo Ave
Westmoreland Ave
Olympic Blvd

제2기
성경필사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 :16~17)



관심과 기도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실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오늘 날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신약성경 6권(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의
성경 말씀 필사를 통해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지난 1기 성경필사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37명에게 전달했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 승리의 열매가 맺힘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2기 성경필사 장학생 33명이 선정되어
2024년 7월 20일부터 필사를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전쟁을 치루며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두가 필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1등



노트북

2등



아이패드

3등



에어팟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 ING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주최 : 기독일보 주관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chdailyreporter@gmail.com

주은혜교회 창립 8주년 부흥성회, "믿음의 방향"

우리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역사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라카나다 주은혜교회(담임 최호년 목사)는 창립 8주년을 맞아 10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교회 본당에서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 목사)를 초청해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의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10월 20일(주일) 김영길 목사는 '믿음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영길 목사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무찌른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 설명하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했다.

"모든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방향이 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의 영적 운동 에너지이다. 우리의 믿음도 방향이 있었다. 정체된 것, 액자 속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방향이 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올바로 잡고 승리했던 수많은 인물이 있다. 요나단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고 무찔렀다. 이 전쟁은 시작부터 이스라엘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믿음을 가졌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방향에서 사건을 해석한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하신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그 기간에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진정한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요셉을 기다리셨다. 종으로 팔려 왔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해 가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기다리고 계셨다. '상천 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기생 라합을 여리고성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기다리고 계셨다.



라카나다 주은혜교회는 창립 8주년을 맞아 10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김영길 목사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개최했다.다.@주은혜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벽 같이 느끼는 그 문제 중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는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이끈 것은 작은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대한 믿음이었다고 고백하며 설교를 마무리했다.

"어머니가 저를 43살에 낳으셨다. 젖이 안 나오니 쌀뜨물을 먹여서 기르셨다. 아버지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돈을 벌러 객지로 나가셔서 작은 집에서 키워주셨다. 시골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업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졸업을 앞두고, 옆집 할머니가 저를 부르셔서, 이제 앞가림을 스스로 하라 하셨다. 11월 말쯤 건조한 가을, 가을 추수가 다 끝난 무렵, 작은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다. 작은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다. '영길아, 서울로 신학대학을 가거라. 나는 네가 태어난 그날부터 이 아들을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 작은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으로 신학대학 4학년을 다니고,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짓겠다고 작은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는데, '절대 내려올 생각하지 말라'는 답장을 받았다. 그분은 제 삶에 있어서 선생님이다."

주은혜교회 최호년 담임목사는 "교회 창립 8주년 만에 첫 부흥성회를 열게 되었다. 지난 목회자 영성기도회에서 김영길 목사님을 통해 목회자의 소명과 비전을 회복하게 되었다. 김영길 목사님을 모시고 첫 부흥성회를 열게 되어 온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절망의 벽을 오르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셉 리 기자

교회 주소: 808 Foothill Blvd. La Canada Flintridge, CA 91011
웹사이트: lordgracechurch.org/

비전케어 미주서부 무료 안검사 제공

11월 2일(토) 9시~12시 LA총영사관 주차장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VCS West·이사장 서영석)가 오는 11월 2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LA한인타운내 월셔와 뉴햄프셔에 위치한 LA총영사관 주차장에서 'LA사랑의 아이캠프'를 연다.

눈질환이 있거나 백내장으로 힘들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인들은 연령대 상관없이 이날 행사장을 방문하면 무료 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백내장 질환이 심각한 저소득층 또는 무보험자 한인에게는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된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안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위해 안경을 무료로 맞출 수 있도록 지원된다.



지난 4월 진행된 아이캠프 행사.

이날 행사에는 켈빈 잉 안과전문의, 리사 황 안과전문의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비전케어 미주서부 이사들 및 유니피케이션 라이온스클럽, 브릴리언트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한다.

후원 단체 및 기관은 장소를 제공하는LA총영사관 외에 오픈뱅크, 피델리티재단, 강드림재단, 코리안아메리칸파운데이션, 패밀리오피스재단, 글로벌어린이재단이다.

비전케어 미주서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한인 무보험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로 안검사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무료 안과 외래진료를 받은 한인은 900여명에 달하며 100여 명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제공했다.

김민선 기자

일시: 2024년 11월 2일(토) 오전 9시~오후 12시
장소: LA총영사관 주차장 (3243 Wilshire Blvd. LA, CA 90010)
문의: (213)215-3420 고정원 이사장.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LA노회 가을 정기노회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LA노회 가을 정기 노회.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LA노회는 10월 21일(월) 오전 11시 나눔과 섬김의교회(담임 김 엘리야 목사)에서 가을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엘리야 김 목사(노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에서 안선신 목사가 대표기도하고 엘리야 김 목사가 '좋은 목사, 나쁜 목사'(요 10: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강성수 목사(증경 총회장)가 성찬예식을 이끌었으며, 예식 후 안선신 목사(서기)가 광고하고, 김인철 목사(증경 총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는 엘리야 김 목사가 인도했으며, 서사라 목사 총회장 후보 추천 건, 신입회원 가입 승인 건총회 참여 건 등을 논의하고 주재임 목사의 폐회기도 후 엘리야 김 목사의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됐다.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기사제공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01



눈 건강
눈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14.90

40~50대: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께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 을 추천합니다.

03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쉴 수 없는 상황에 놓은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를 추천합니다.

J1 MART
Healthy Life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SCAN ME

호주 기독교, 5년 새 8% 감소... 전도 노력 강화



기도하는 참석자들의 모습. ⓒ리치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기독교인들이 교세 감소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매진하고 있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이 보도했다.

2021년 호주 인구조사에 따르면, 호주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절반 미만인 44%로 나타났으며 이는 5년 전보다 8% 줄어든 수치다. 독일 통계분석포털인 스태티스티카(Statistica)는 "호주에서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종교적 소속이 없거나 다른 영적 또는 세속적 신념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며 "종교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움직임은 종교적 의식 대신 시민 주례 결혼이 증가하는 것으로도 드러나며, 대부분의 결혼은 시민 주례자가 집전한다"고 전했다. 호주는 120개 이상의 종교가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기독교'와는 관련성이 덜하다고 할 수 있으며, 스태티스티카는 호주를 "다양한 이주민 인구를 가진 세속적 국가"로 간주한다.

한편 호주에서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를 중심으로 다른 종교들도 성장하고 있다. 스태티스티카는 "호주에서 기독교 신앙이 서서히 쇠퇴하고 있는 반면, 다른 종교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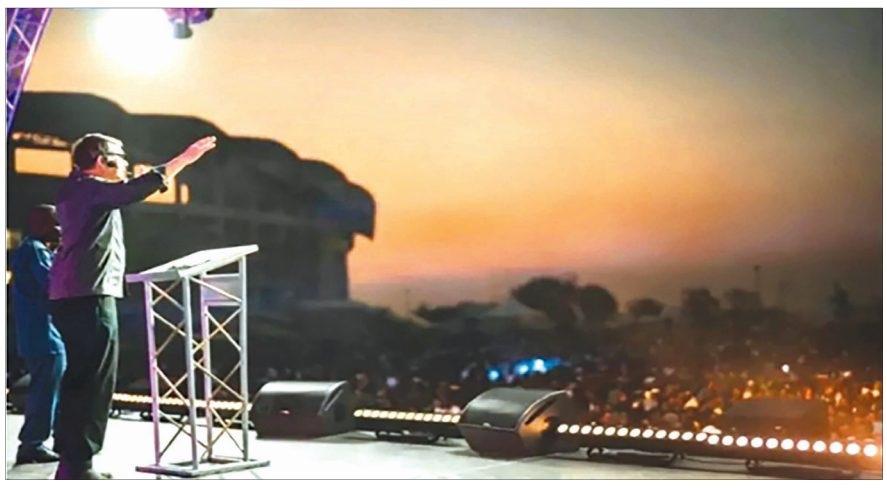
무슬림 인구는 마지막 인구조사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상당히' 증가했다. 보고서는 "호주에서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중립적이지만, 기독교인과 무슬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더 많다"고 했다. 호주인들은 알려진 종교와의 관계는 적었으나 종교적 신앙이나 영적인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일부 종교적 신념은 여전히 정체성과 일상 생활의 핵심 원칙이다.

최근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호주 내 일부 교회와 교회 네트워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60개 이상의 교회로 구성된 네트워크인 '리치오스트레일리아'(Reach Australia)는 호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지난 5월에 열린 전국 컨퍼런스에서 플랜트(Plant)의 이사인 데렉 한나(Derek Hanna)는 향후 복음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슈에 관해 언급했다.

한나는 '교회 개척에 대한 국가의 상태'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2030년까지 호주에 3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 네트워크는 현재까지 145개의 교회를 개척했으며, 향후 6년 내에 155개 교회를 개척할 계획이다. 이에 800명의 새로운 복음 사역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네트워크 내 교회의 평균 성장률은 연간 4%였으며, 그 궤적을 통해 300개의 새로운 교회 개척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며 "이것은 승리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역사의 이 지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루이스팔라우협회, 잠비아서 복음 전파… 24만 명 결단



앤드류 팔라우 목사가 '사랑의 잠비아 페스티벌'에서 복음을 전했다. ⓒLuis Palau International/Facebook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루이스팔라우협회가 교회 연합을 위해 4,900개 이상의 교회와 협력하여 잠비아의 다섯 도시에서 73만 1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수도 루사카에서 3일간 열린 '사랑의 잠비아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전도 캠페인은 기독교인 수만명을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했다. 5개월 동안 진행된 이 캠페인은 지역 전역에서 열린 집회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감옥, 시력 및 의료 클리닉, 여성 만찬 행사, 스포츠 클리닉, 학교 아웃리치, 비즈니스 및 시민 지도자 모임 등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

앤드류 팔라우 목사는 캠페인 기간 1,600명의 재소자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중 1,098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일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에 크게 놀랐다"며 "수감자들이 매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페이스북에 기재했다.

해당 아웃리치 행사의 절정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3일간의 페스티벌이었다. '사랑의 잠비아 페스티벌'은 37만 4,9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15만 4,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페스티벌은 돈 모엔(Don Moen), 폼피(Pompi), 에프라임(Ephraim) 등 여러 아티스트의 음악과 공연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족 친화적인 행사로 어린이 전용 공간, 놀이기구, 특별 복음 프로그램, 스턴트 공연이 포함되었다.

CP는 이와 함께 팔라우 협회가 11개국에서 온 60명의 파트너 전도자들과 함께 잠비아 내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 전도 집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추가로 35만 6,534명이 복음을 접했고, 그중 6만 6,07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셜 미디어 광고로 10만 명 이상이 복음을 접했으며, 그중 2만 명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잠비아 전역에서 73만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24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팔라우 협회는 앞으로 아르헨티나, 중국, 도미니카공화국 등 여러 도시에서 복음 전도 캠페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c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진건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00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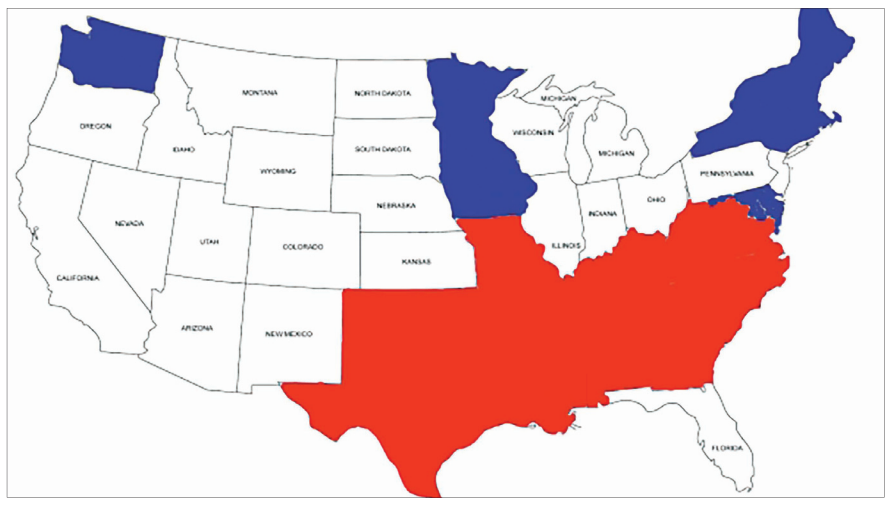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바이블벨트, 복음주의 바탕으로 영향력 발휘해야"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미국의 바이블 벨트 지역이다.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기독교 작가이자 문화변증가 마론 드 블라시오(Marlon De Blasio) 박사와 트리니티인터내셔널대학교 크리스 파이어스톤(Chris Firestone) 박사의 글 '바이블벨트, 마지막 희망의 기둥인가?'(Is the Bible Belt the last pillar of hope?)를 게재했다.

두 사람은 이 글에서 "바이블벨트는 종종 부정적인 뜻으로 묘사되며, 주류 문화와의 대화에서 별다른 중요성이 없는 하위 문화로 인식된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의 역사 속에서 바이블벨트는 성경적 진리의 마지막 방어 기둥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바이블벨트가 전통적인 서구 철학과 신학의 유산 속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전달자임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 "프랜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는 서구 사상을 '철학에서 시작해 성경 신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개념 연결'로 묘사했다. 그는 철학 사상이 대학을 통해 예술, 음악, 문학, 영화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류 서사를 형성하고, 이 서사들이 점차 상식의 희생을 대가로 정당성을 얻게 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970~1980년대에 자란 많은 이들에게, 쉐퍼의 저서 '이성으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Reason, 1968)와 '거기 계시는 하나님'(The God Who Is There,1969)은 서구 사회의 급변에 대한 강력한 분석이었다. 그가 지적한 대로 서구는 절망의 선을 넘어섰고, 이후 서구 세계는 논리와 객관적 도덕성, 기독교 전통을 잃고 무한한 인간 자유를 추구하는 체계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의 서구 철학은 종교적 진리와 도덕적 가치를 의심하고 해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내 서구 지식 전통도 자연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물질주의, 자유사상적 개인주의로 무장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다. 바이블 벨트는 여전히 진리와 서구 전통을 지키고 있다. 특히 리버티대학교(Liberty University)와 비올라대학교(Biola University)같은 기독교 대학들은 이러한 사상의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바이블벨트는 복음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주류 문화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문화적 변증(cultural apologetics)은 복음의 진리와 그 정당성을 현대 문화 서사에 맞서 소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바이블벨트가 이러한 방식으로 서구 문화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문화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서구 세계와 그 너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틱톡, 미성년자 데이터 보호 위반 혐의로 美서 소송 당해

미국 텍사스주 켄 팩스턴(Ken Paxton) 법무장관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반하고 21명의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춘기 억제제와 이성 호르몬을 처방한 의사를 상대로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메이 C. 라우(May C. Lau) 박사는 최소 21명의 미성년 환자에게 생물학적 성을 전환하거나 자신의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불법적이고 위험하며 실험적인 의료 시술'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우 박사는 댈러스에 있는 텍사스대학교 사우스웨스턴 의료센터의 직원이며, 댈러스 아동의료센터와 플레이노 아동의료센터에서 병원 특혜를 받고 있다.

고소장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의사가 어린이에게 사춘기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텍사스 건강 및 안전법 제161.702(3) 조항'을 라우 박사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상원법안 14호(SB14)로 통과된 바 있다.

또 그가 미성년 환자에게 생물학적 성별 전환 또는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확인시키려는 목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제공, 처방, 투여 또는 분배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춘기 억제제를 처방받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1명의 미성년 환자의 경험이 간략히 기록돼 있으며, 그 중에는 14세에 불과한 환자도 있었다. 고소장은 "라우 박사는 미성년 환자에 대한 사춘기 억제제 사용이 생물학적 성별의 전환이나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다른 용도인 것처럼, 환자의 진료 기록, 처방전 및 청구 기록을 위조해 약국, 보험 제공자 및 (또는) 환자를 속였다"고 주장한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텍사스는 되돌릴 수 없고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위험하고 비과학적인 의료 개입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러한 유해한 '성전환' 약물과 치료를 계속 제공하는 의사는 법에 따라 최대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2023년 5월에 통과돼 2023년 9월 발효된 해당 법안은, 의료 전문가가 신체 절단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거나 어린이에게 사춘기 억제제와 이성호르몬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가 "조숙한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성 발달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유전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미성년자가 "의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결정한 대로 남성 또는 여성의 정상적인 성 염색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절차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됐다.앞서 여러 진보적 단체의 대표들은 SB14 법안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6월, 텍사스 대법원의 레베카 아이즈푸루 허들(Rebeca Aizpuru Huddle) 판사는 다수의견에서 "의회가 아동을 위한 이용 가능한 의료 시술 유형을 제한하는, 허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이 법률이 부모의 권리를 위헌적으로 박탈하거나 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의료 면허에 대해 주장된 재산권이나 직업적 자유권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작성한 데브라 레어만(Debra Lehrmann) 판사는 "해당 법이 잔인하고, 헌법에 어긋난다"며 "다수의견은 현재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의료 치료 옵션을 효과적으로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연 기자

CAFO, 20주년 기념 행사 개최
고아 돌봄 사역 확산 및 변화 강조



CAFO가 46개국 2,400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20주년 사역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CAFO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기독교 고아 지원 연합(Christian Alliance for Orphans, 이하 CAFO)이 지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테네시주 내슈빌의 브렌트우드 침례교회에서 개최된 연례 행사에서 46개국 2,400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20주년 사역을 기념했다고 보도했다.

CDI에 따르면 CAFO는 2004년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개최된 29명의 기독교 지도자 회의에서 설립되었으며 이들은 고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를 위해 교회를 일깨우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며 3년 후에는 500명의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밝혔다. 미국 입양 및 위탁 보호 분석 보고 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의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약 36만 9천 명의 아동이 미국 아동 복지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되었다. CAFO의 회장 제드 메데파인드(Jedd Medefind)는 2024년 기념 행사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에 가지신 큰 관심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이며, 매일 저와 여러분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DI의 보도에 따르면 행사에서는 텍사스 포섬 트롯(Possum Trot)과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변화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졌으며 베넷 채플 선교 침례교회의 W.C. 마틴 목사와 그의 아내 도나가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마틴 목사 가정은 1996년 네 명의 위탁 아동을 입양했고 이에 영감을 받아 마틴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의 22가정이 77명의 아이들을 입양했다. '소리 없는 희망: 포섬 트롯의 이야기'(Sound of Hope: The Story of Possum Trot)에 따르면 "입양된 아이들은 모두 학대와 방임 같은 어려운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일하셨다"고 소개하고 있다.

CDI는 기념 행사에서 새로 발표된 세 찬양곡은 "Faithful to Me," "Home in the Family," 그리고 "What's a Father's Like"이며 이 곡들은 입양과 위탁 가정의 여정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 작곡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고아와 연약한 자들을 향한 마음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도했다.

최승연 기자

존 레녹스, 리차드 도킨스에 반박
"무신론은 희망 없는 신앙"



존 레녹스 박사.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박사의 견해에 대해, 기독교 변증가이자 수학자인 존 레녹스(John Lennox) 박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옥스포드기독교변증센터(OCCA) 회장이기도 한 레녹스 박사는 최근 서신에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며 도킨스 박사의 말을 인용했다. 레녹스 박사의 인용구는 도킨스 박사의 책 '에덴의 강'에서 따온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맹목적인 물리적 힘과 유전자 복제의 세계에서 어떤 이들은 다치고, 어떤 이들은 운이 좋으며, 그 안에서 운이나 이성을 찾을 수 없으며, 정의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근본적으로 무자비한 무관심 외에는 설계도, 목적도, 악도, 선도, 기대할 것도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DNA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DNA는 그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이와 관련, 레녹스 박사는 "난 도덕적인 존재임을 깨달았으며, 내 마음은 정의를 외치며 울부짖었다. 무신론은 방정식에서 하나님을 제거함으로써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희망을 제거한다. 하나님이 없다면 궁극적 정의도, 죽음 이후의 삶도 없다. 무신론은 희망 없는 신앙"이라고 했다. 그는 아우슈비츠 나치 강제수용소를 방문할 때마다 울었다며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에 직면했을 때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가 이해됐다. 고통의 문제는 그 자체로 복잡하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에 있으며, 그것과 함께 극심한 아픔이 따른다"고 했다.

그는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울지라도,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레녹스 박사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은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부가 되셨지만, 그것이 마지막 단계는 아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 희망이 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했다.

그는 22세의 조카가 청소년 목회자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뇌종양으로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가족은 '심각한 고통'을 경험했지만 조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들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희망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OC채플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ZOO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중보기도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베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샤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10월 31일, 할로윈 대신 홀리윈!

할로윈을 앞두고 남가주 교회들은 교회 어린이들뿐 아니라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홀리윈(10/31)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 잔치가 10월 31일(목) 오후 5:30~8:30까지 동양선교교회에서 개최된다. 동양선교교회 주일학교 뿐만 아니라, LA 지역 모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다.

주소: 424 N Western Ave, LA, CA
문의: 이병목 목사(626-567-6728)

나성영락교회 (10/31)

나성영락교회는 10월 31일(목) 오후 7~9시까지 교육관 마당에서 할렐루야 나잇을 개최한다.

또감사선교교회 (10/31)

또감사선교교회는 'Shine Jesus' Light!'이라는 주제로 10월 31일(목) 6:30-8:30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홀리윈 나잇을 개최한다. 이웃,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최은선 전도사(213-249-3800)

LA기쁨의교회 (10/31)

LA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 3938 Wilshire Blvd. LA CA 90010)은 10월 31일(목) 오후 6시에 Hallowed Night을 개최한다.

주소: LA기쁨의 교회 (The Church of Joy)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Ingraham St.에 주차장 입구가 있다.)

나성성결교회 할렐루야 나잇 (11/1)

나성성결교회는 유-초등부를 대상으로 11월 1일(금) 오후 7:30에 할렐루야 나이트를 연다.

웹사이트: nahsungchurch.com
주소: 1324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남가주 동신교회 (10/31)

남가주 동신교회는 10월 31일(목) 오후 5:30에 본당과 친교실에서 약속의 무지개라는 주제로 할렐루야 나잇을 진행한다.

남가주동신교회 주소: 2505 Yorba Linda Blvd,Fullerton, CA 92831

감사한인교회 할렐루야 나잇, (10/31) 등록 필수!

감사한인교회는 10월 31일(목) 저녁 5시~9시까지 교회 주차장(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에서 할렐루야 나잇을 연다. 입장을 위해서 등록을 꼭해야 한다.

세리토스 선교교회 (10/31)

세리토스 선교교회는 10월 31일(목) 5:30-8:30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할렐루야 나잇을 연다.

주소: 12413 195th St, Cerritos, CA 90703 **문의:** (562) 402-2919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10/27)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는 27일(주일) 오후 4:30분부터 비전스쿨 주차장에서 할렐루야 나잇 행사를 진행한다.

주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문의: 714-899-9191

얼바인 온누리교회 홀리윈 (10/31)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10월 31일(목) 오후 5:00-8:00까지 교회 주차장 및 본당에서 3세~6학년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https://irvonnuri.clickn.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이지나 전도사(818-312-2173)

은혜한인교회 (10/31)

은혜한인교회는 10월 31일(목) 오후 5시~8시까지 은혜광장에서 유아부터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할렐루야 나잇을 개최한다.

예배를 비롯해 train ride, pony ride, petting zoo, bounce house, carnival games 등 풍성한 잔치를 연다 .

제29회 남가주 장로 성가단 정기 연주회

11월 17일(주일) 5시
파사데나 장로교회서

남가주 장로 성가단(Elders Choir of Southern California, 단장 한경환)은 11월 17일(주일) 오후 5시 파사데나 장로교회(Pasadena Presbyterian Church, 담임 최진혁 목사)에서 제29회 정기 연주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는 장로성가단과 함께 지휘자 장진영, 반주자 윤경미, 소프라노 이영주, 플루이스트 최혜성이 출연한다.

남가주장로성가단은 1992년 교파를 초월한 20여개 교회에서 25명의 장로들이 모여 창단된 이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통한 전도사역 및 교회 음악 발전을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한편 남가주장로성가단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나성영락교회에서 성가연습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다.

문의: 213-700-0053 (단장), elderschoir.com
연주회 주소 :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김민선 기자



11월 3일 나성성결교회 54주년 기념예배

미주 최초의 성결교회로, 1970년 11월 1일 창립된 나성성결교회(Korean Christian Nahsung Church, 담임 이성수 목사)는 오는 11월 3일(주일) 오전 10시 40분에 창립 5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

웹사이트: nahsungchurch.com
주소: 1324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교회 문의: 213-382-9509, nahsungevangelical@gmail.com



코너스톤교회, 스티븐 오 감독 초청 전도집회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할리웃 특수촬영감독 스티븐 오 감독을 초청해 11월 3일(주일) 오전 11시, 오후 4시와 7시에 간증집회를 개최한다.

「미션 임파서블 7」, 「존 윅 4」, 「스타워즈 9」, 「007 노 타임 투 다이」 외 다수의 영화를 촬영한 할리우드 특수(드론, 항공 등)촬영 감독인 스티븐 오(Stephen Oh)는 작년 2023년 다니엘기도회에서 '할리우드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잠언 16:1-9)'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도전을 준 바 있다.

간증집회는 11월 3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 오후 4시(한어 간증), 오후 7시(영어 간증)에 열린다.

김민선 기자

주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USA
전화: 310-530-4040
웹사이트: cornerstonetv.com/news-ite/



스티븐 오 감독 초청 전도집회가 코너스톤 교회에서 11월 3일(주일)에 열린다.

[사설]
한국인 첫 노벨 문학상 수상, 빛과 그림자

소설가 한강 씨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강 씨의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은 아시아 여성 최초이자 한국인 최초라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저력을 전 세계에 떨친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올해로 124년을 맞은 노벨상은 모두의 예상을 보란 듯이 비껴갔다. 한국의 50대 젊은 여성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는 신선한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설가 한강은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의 소설로 세계적 인지도를 쌓아 영국이 주는 권위 있는 문학상인 맨부커상과 프랑스 메디치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이미 국제적인 문학상을 휩쓸며 상당한 명성을 쌓은 한강 씨가 당초 노벨 문학상 유력 후보군에서 빠졌던 건 아시아 국가, 그중에서도 서구 문학계에서 변방으로 취급되던 한국 작가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국내 서점가가 때아닌 호황을 맞은 모습이다. 한강이 쓴 주요 소설집 판매가 수상 직전 대비 2240배나 증가하는 등 '신드롬'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는 수상 다음 날 각각 약 3만 8000부가 판매되며, 단일 도서(예스24 기준) 일일 최다 판매량을 돌파했다. 그런데 축하와 찬사 일색인 한편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한강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페미니즘적 성향을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런 논란에 뉴욕타임즈(NYT)도 "한강 작가의 작품은 무거운 역사적 짐을 다루면서 페미니즘 시각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설 '채식주의자'는 주인공 영혜가 어느 날 꾼 꿈을 계기로 육식을 거부하면서 가족들과 갈등을 빚는 이야기다. 화가인 형부가 처제인 주인공의 알몸에 꽃을 그려 넣고 촬영하며 성행위를 갖는 장면이나 주인공이 식음을 전폐하자 아버지가 억지로 고기를 입에 밀어 넣거나 주인공이 칼로 손목을 그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내용으로 화제가 됐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 한강 씨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를 읽다가 중도에 포기했다는 이들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을 둘러싼 가족관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적 묘사를 불편해하는 내용이다.

보수진영에선 작가 한강 씨를 '좌파'로 부르고 있다. 그가 2017년 NYT에 'While the U.S. Talks of War, South Korea Shudders(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 친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게 발단이다. 6.25 전쟁을 강대국들의 대리전으로 규정하며 전쟁 중 발생한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을 거론해 6.25 전쟁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미국에 물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고세진 전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장은 본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강의 소설을 보면, 5.18 사건을 편향적으로 다루고, 4.3 폭동의 정체를 호도하였고, 대표적 소설인 '채식주의자'에서는 남성과 가족에 대한 감성적 해체와 지성적 파괴를 시도하는 포르노"라고 있다. 이어 "이런 것들을 숙고해 보면 한강이 받은 노벨 문학상은 종북좌파 문학에 대한 축복의 세레모니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후 그의 소설을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동안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다. 본지가 경기도교육청 측에 확인한 결과 교육청이 폐기를 권고한 게 아니라 해당 학교 도서관 위원회가 소설 속에 나오는 선정적인 내용을 문제 삼아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정해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도서를 쓴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해서, 해당 도서를 읽도록 장려하거나 권장할 계획이 없으며 현행대로 각 학교 도서관 위원회에 청소년 유해 도서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자율적으로 맡길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사실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볼 때 현실이 오버랩되고 이를 주관화하는 건 종종 있는 일이다. 한강 씨의 작품 가운데 유독 그런 요소들이 많아 평가 또한 극단적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6.25 전쟁과 4.3사건, 5.18 등 시대적 아픔을 소재로 한 내용이다.

한강 씨가 자신의 작품 속에서 그린 시대적 아픔과 갈등은 작가의 역사관과 가치관과 동일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외국 언론에 기고한 글이 역사적 편향성 논란에 불을 지펴 비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의 소설 모두를 같은 부류를 묶는 건 생각해 볼 문제다. 소설은 창작물이지 결코 사실일 수 없다. 작가의 이념과 생각이 작품에 투영됐다고 그 소설이 다큐멘터리가 될 순 없다. 다만 작가가 작품 속에서 의도하는 방향, 즉 이념 편향성에 대해선 독자들이 깨어있는 양심으로 걸러낼 필요가 있다.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환점이 된 일대 사건이다. 하지만 한국인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훌륭한 작가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

배본철 칼럼

신비로운 성령의 인도하심



배 본 철 교수
성결대학교 명예교수

교회의 초기 활동을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의 많은 사례가 있음을 본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만 든다면 다음과 같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지시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특히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수레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주셨다.

성령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받고 쓰러진 사울에게 다음과 같은 분명한 지시를 주셨다. 이 당시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로 인하여 매우 당황스러운 지경이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일 이후 계속 사울, 즉 바울의 삶속에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주셨고, 그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고전 2:4)만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행 9:4-6)

성령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주고받으신 후 행할 일을 일러 주셨다. 당시 아나니아는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사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익히 들었던 터라 이 점에 대해 성령께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는 오히려 사울이 앞으로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까지 주심으로 아나니아에게 확신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바로 이때가 다메섹 체험 이후 성령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때였으니, 성령께서는 역시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행 9:10-16)

성령께서는 고넬료에게 지시하여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고, 역시 비슷한 시간 베드로에게도 고넬료를 만날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행 10:3-6)

특히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의미를 풀어주심을 통해, 베드로가 전부터 갖고 있던 유대 민족주의적인 편견을 깨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할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하셨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깨뜨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절감할 때가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 초월적으로 일하시면 이 모든 일도 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의 사역 속에서 많이 경험하곤 한다.

옥에 갇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날 때에도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러한 일은 매우 신기한 일로 여겨지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따르기만 하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잘 이해하고 따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2024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CPU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온캠퍼스과 온라인 동시 프로그램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WEBRIDGE
CHURCH TO CHURCH

미자립교회를 위한

제3회 WE BRIDGE CONFERENCE 2024



"RESTORE"

Flesh and Soul

일시: 11월 10일(주일) 4:30pm - 12일(화) 12pm(2박3일)

장소: 아름다운교회 기도원
(32900 CONIFER CAMP RD., RUNNING SPRINGS, CA 92382)

주관: 미주 기독일보, WEBRIDGE 기획팀 / **기획**: ONEHEART MINISTRY
문의: 213_739_0403

컨퍼런스 **참가신청** ·····>

강사



고승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 이종용 목사 (코너스톤교회) | 고광선 목사 (한길교회) | 김귀보 목사 (큰 나무교회) | 곽부환 목사 (한마음제자교회) |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 국윤권 목사 (충현선교교회) | 써니 킴 목사 (LA씨티교회) | 유혜연 선교사 (풍성한 삶 연구소 대표)

후원 교회: 아름다운교회, 큰나무교회, 감사한인교회, 한길교회, 한마음제자교회, 충현선교교회, LA씨티교회
웨스트힐장로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시애틀 형제교회, 위브릿지교회

후원업체: BTS 솔라 DESIGN, 센터메디컬그룹, Trinity MS, 월드쉐어 USA

김한요 칼럼

뜻대로 되지 않아 절망하는 분들께



김 한 요 목사
베델교회 담임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가 분명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좋은 뜻이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앞날이 한창인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고, 매일 방에 틀어박혀서 무위도식한다면 부모님들의 속이 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오늘 조금씩 달려갈 것을 격려합니다. 어렸을 때, 위인전집을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꿈을 가지도록 교육시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계몽사]에서 나온 소년소녀 세계 위인전집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위시해 미국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인전집을 아이들에게 읽도록 요구한 부모님들이나, 그 위인전집을 읽고 자라온 자녀들에게 오늘 묻는다면, 그런 목표를 정하고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방향 없이 달리는 인생보다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온 인생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점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던 길이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런 인생사를 한눈에 꿰뚫어 보는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 뭐 어쩌라는 말인가? 대충 살라는 말인가? 이것이 우리가 목표를 갖고 행하는 모든 것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나의 정상 목표점에 이르렀다고 다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문에 임하는 학생이 박사가 되었다고, 첫 사업을 시작한 비즈니스맨이 기업을 이루었다고, 처녀가 결혼했다고… 모든 인생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그것이 인생의 승패를 결론 내는 것이 아니듯,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 그 끝에서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을까요? 이루지 못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루셨다고 '인생 성공'이라고 결론 내지도 마십시오.

금메달을 목에 걸어도 4년 후 또 올림픽이 오듯이, 인생은 만만치 않은 산 넘어 산입니다. 실패에 절망하지 말고, 성공에 교만하지 맙시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의 걸음을 옮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구봉주 칼럼

앨라배마 버밍햄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담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을 처음 방문하는 일은 무척 설레는 일입니다. 부흥집회 일정으로 미국의 전형적인 남부도시인 앨라배마 버밍햄을 방문하였습니다. 10월 임에도 버밍햄의 낮 기후는 여전히 후덥지근한 날씨였습니다. 금 저녁, 토 새벽과 저녁, 주일 낮 1, 2부, 3부 임직자 훈련을 위한 세미나까지, 바쁜 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은 매 집회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참고로 직항이 없어, 경유하여 오고 가는데, 각각 하루씩 꼬박 걸렸습니다.

제가 이번 가을 부흥성회로 섬긴 버밍햄 한인 장로 교회는 37년 전에 버밍햄에 개척된 교회로써, PCUSA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의 교회입니다. 십 수 년 전에는 앨라배마에서 제일 규모가 큰 한인 교회였으나,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고 난 뒤, 교세가 많이 줄어, 불과 몇 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문을 닫을 것을 고려할 만큼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2년 전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의 수고와 남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최근에 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교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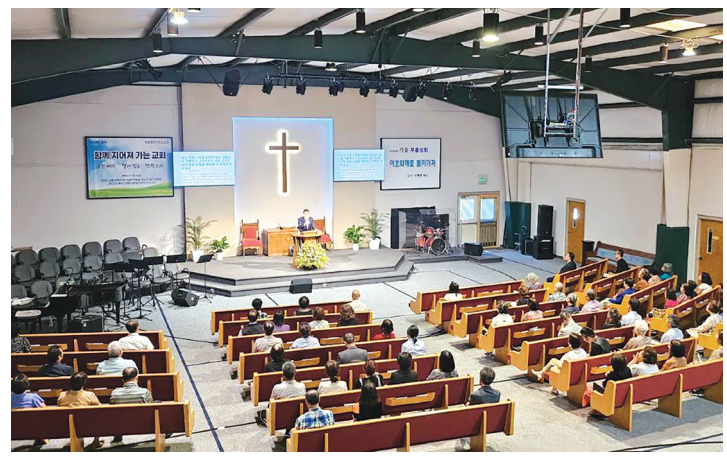
이번 부흥집회는 곧 다가올 임직을 위해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도록 돕는 일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집회를 계기로 여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듣고, 결단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를 통해, 저는 2가지 영적인 인사이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인사이트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각 개인의 크리스천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 개인의 신앙의 성장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생명이자 사명은 예배 공동체에 속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의 타겟이고, 또한 인간의 연약함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잘 돌보아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겪은 교회의 아이러니한 점은 교회의 갈등과 분쟁 때문에 상처를 입은 성도들도 결국에는 다시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할 때, 회복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교회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와 성도들은 타락한 극히 소수의 목회자들과 교회 직분자들, 교회의 연약함을 들어,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영광성을 훼손하는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핍박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두번째 제가 받은 인사이트는 교회 간의 상호 협력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우주적 교회, 전세계의 모든 크리스천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당시 지역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교회 간에는 서로 협력하고, 파송하고, 돕고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다른 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는 다른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 예루살렘교회를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어쩌면, 한인들이 많지 않고, 교세가 약한 미국의 중소도시를 품고 섬기는 것도 넓은 관점에서 선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버밍햄한인장로교회에서 구봉주 목사가 집회를 인도했다. @버밍햄한인장로교회

집회를 통해 그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의 식사대접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갈급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한 마음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떠나는 날, 버밍햄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런 저런 목회적 고민과 비전을 나누는 중에 앨라배마 지역에 뜨레스 디아스를 할 수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여러 교회가 협력하여 오실 분들이 있으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약속 아닌,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중소도시 지역교회들이 요청한다면,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성령의 단비가 필요한 미국의 중소도시 한인교회들을 기꺼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잘 계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식사는 잘 드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인사를 전합니다.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헤아려 본 사모들

요즘 사모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견디며 지낼까



사모들의 속마음

강소라 외 6인 | 세움북스 | 288쪽 | 18,000원

평범한 한 여성이 어떤 시간을 거치며 사모가 되었고, 그녀에게는 어떤 시간들이 펼쳐지며, 그녀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려 나가고 있다

이 책은 서로 다른 일곱 명의 '요즘 사모'들의 이야기다. 일곱 사모의 이야기가 모든 사모들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사모를 이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녀들의 생각과 고민, 갈등과 관심 등 이전에 미처 관심 갖지 못했던 따뜻한 이야기는, 교회 안의 잊힌 존재인 '사모'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는 또 다른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다

〈사모들의 속마음: 요즘 사모는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읽으면서, 만일 아내가 여덟 번째 저자로 참여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삶을 나눴을까, 그리고 그것은 목회자인 필자에게 어떤 감동 또는 부끄러움을 주었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됐다.

글로리아 퍼맨은 'The Pastor's Wife'란 책에서 "So, You Married the Man Who Marries People"이란 챕터를 썼다. 번역하면 "그래요, 당신은 사람들(성도들)과 결혼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라는 말이다.

그렇다. 그래서 목회자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오롯이 아내와 자녀에게 마음을 쏟기 힘들고, 교회 안에서 공인처럼 받는 시선과 판단과 기대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노출해야 하므로 '진정한 나'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힘들다.

존 파이퍼의 아들 바너버스 파이퍼는 이런 고충을 〈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잘 담아냈는데(좋은씨앗, 2018), 서문을 쓴 존 파이퍼는 아들의 고충을 들으며 많은 눈물과 회개를 쏟아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녀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사모들의 속마음〉의 추천사를 이 책 공동 저자인 사모들의 남편들이 각각 썼다는 점도 이런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파이퍼와 같은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함께 계속해서 이 길을 믿음으로 동행하기 원하는 결단의 마음이 남편들의 글에 분명히 보였고, 또 충분히 공감됐다. 강소라, 박세윤, 박슬아, 소지희, 이슬비, 이은미, 이정희. 이 책 저자들은 모두 사모다. 개척교회 담임목사 사모도 있고, 파트타임 사역자 사모도 있고, 기관 사역으로 전환한 목사의 사모도 있다. 하나님이 각각 이들을 부르신 방식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몇 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견고하고 안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라 사모가 됐고, 어떤 사람은 전문 직장을 다니면서 주님을 위해 재능을 바치려고 계획했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모의 길로 들어섰다.

성격도 각각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매우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혼자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들 모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순종할 때 기꺼이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결단한 사모라는 점에서, 남편과의 갈등, 교회 안에서 사모로서 적응하는 삶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같은 짐을 지고 있다.

'사모는 이래야 해'라는 기대는 적응하기 힘든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 기대를 모두 무시하고 '난 내 방식대로 살겠어'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주님께서 목자에게 요구하신 성도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두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같은 결과를 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이 책 저자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애썼고, 그 결과 그 정도(正道)를 찾아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모가 찾은 성경적 정도인 것이다. 이 책은 사모란 이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여인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사모로 불러 사용하시는지 고백하는 살아 있는 간증이다.

이 책은 목회자와 사모에게 일차적으로 유익하다. 책의 저자들이 똑같이 고백한 것처럼, 사모는 마음을 풀 데가 없다. 성도에게 받은 상처를 성도와 나눌 수 없고, 남편과의 일을 남편이 돌보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으로 자기 고충을 공감하는 친구를 만난 것 같고, 또 위로받을 수 있다. 목사는 자기 아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마음과 싸우고 있는지 책을 통해 배우고 합당한 격려와 보호,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은 성도들에게도 유익하다. 그들과 같은 성도이지만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모를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사모의 푸념과 불만을 늘어놓는 책이라면 독자에게 부담과 짐이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돕는 배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자주 위로받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마음을 발견하는 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모의 속마음을 다룬 책이 매우 드문 현실에 정말 귀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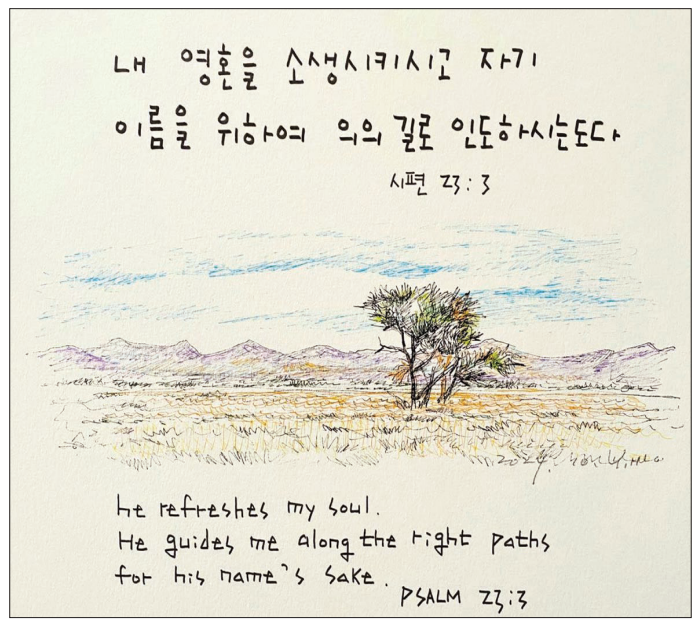
목사와 사모는 항상 성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기 위해 애쓴다. 그리고 대부분 출판된 신앙 서적은 그것을 돕는 유익한 도구가 된다. 반대로 목사와 사모의 속마음을 들여다 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공감할 수 있는 희귀한 도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 책을 기쁨으로 추천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참석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목회자사모신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龍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재미 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지옥에서 온 판사〉 (2)

〈지옥에서 온 판사〉 같은 판타지, 기독교에 좋지 않은 이유

2000년대 이후 장르문학 활성화
국산 판타지 드라마 본격 시작
드라마로 내세 관한 호기심 충족
〈신과 함께〉, 〈도깨비〉 결정적

박욱주 박사님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에서는 지난 회에 이어 SBS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를 분석합니다. 이 드라마에는 악마 판사 '강빛나(박신혜)'를 비롯해 경찰 한다온(김재영), 구만도(김인권), 이아룡(김아영), 오미자(김영옥), 정재걸(김홍파), 정태규(이규한), 장명숙(김재화), 김소영(김혜화), 박동훈(김지훈), 고은섭(박지훈), 정선호(최동구), 김재현(이중옥), 문동주(하경민), 안대용(김광규) 등이 출연합니다. -편집자 주

드라마 속 판타지: 판타지 서사가 드라마 업계를 양분하기까지

〈지옥에서 온 판사〉는 2000년대까지 한국 드라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내세를 배경으로 삼는 판타지 장르 서사를 다룬다. 과거 한국 드라마 시장에서 판타지 장르는 금기에 가까운 영역이었다. 특히 1995년 3월 케이블 채널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의 방송가, 즉 공중파 3사가 드라마 방영권을 독점하던 시절에는 판타지 요소가 드라마 서사에 거의 관여될 수 없었다. 아주 드물게 〈전설의 고향〉 같은 고전극 시리즈에 저승이나 혼령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다였다.

당시 방송가는 드라마 내용 선정이나 심의에 매우 보수적이어서, 판타지 서사를 각본으로 채택하는 일이 없다시피 했다. 시청자들 또한 국산 공중파 드라마로 판타지 서사를 접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니 방송에서 판타지 드라마를 보려면 외국 드라마를 봐야 했다. 이에 〈육백만불의 사나이〉, 〈후 박사의 모험(닥터후)〉, 〈브이〉, 〈내 친구 바야바〉, 〈환상특급〉, 〈천사 조나단〉 같은 미국산 공상과학, 몬스터, 심령, 내세 관련 판타지 드라마가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곤 했다.

국내 드라마 업계에서 판타지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주로 사극 부문이었다. 역사적 고증은 포기하는 대신 판타지 서사에 점점 더 익숙해지는 시청자들 정서에 맞는 서사를 선보이면서, 극에 신비감을 더하기 위해 신화적 요소들을 도입하여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06년 방영된 〈주몽〉과 2007년 방영된 〈태왕사신기〉를 본격적 출발점으로 볼 수 있고, 이후 유사한 형태의 드라마가 여러 편 제작되었다.

또 2000년대 국내 장르문학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이 시장이 온라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산 판타지 드라마에 거부감이 없는 시청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를 배경으로 삼는 드라마에도 점차 판타지 서사요소가 유입되기 시작한다. 2010년 방영된 〈시크릿 가든〉, 2013년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가 대단한 인기를 얻으면서, 판타지 드라마는 갈수록 한국 드라마 시장의 주변부가 아닌 주류로 자리잡게 된다.

현재는 웹소설-웹툰-드라마의 활발한 미디어 믹스를 통해, 판타지 드라마가 남녀간 연애사를 다루는 드라마와 함께 해당 업계를 거의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판타지 드라마 분야에서 유독 눈에 띄는 영역이 있다면, 내세나 영혼에 관한 서사를 선보이는 작품들이다. 2016년 이래 무속, 신화, 불교 교리,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이리저리 뒤섞은 작품들이 우후죽순으로 제작되었다.

여기에는 국내 웹툰업계에서 전설적 흥행 기록을 남긴 〈신과 함께〉(2010) 시리즈와 드라마 〈도깨비〉(2016)의 파급효과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신과 함께〉는 2017년과 2018년 영화화돼 극장가에서도 두 편 모두 천만 관객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내세와 영혼에 관한 판타지 서사가 웹툰, 영화, 그리고 드라마 업계에서 모두 폭발적인 흥행 기록을 낼 수 있었던 까닭에, 이제는 방송가에서도 거의 주기적으로 내세 관련 판타지 드라마가 제작되곤 한다.



인간세계로 잠시 추방된 지옥의 재판관이자 악마 유스티티아의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드라마 속 내세: 구전설화 및 마술서와 동격의 레퍼런스 취급을 받는 성경

내세 관련 판타지 드라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일견 당연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되고 과학주의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무한·초월·신비에 대한 인간의 관심과 끌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반드시 죽음에 이르며, 이 죽음에 대해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불안감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 죽음 너머 초월의 세계에 대한 원초적이고도 강렬한 관심을 유발한다.

전근대 한반도에서 내세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실존적 관심은 주로 무속과 불교 같은 전통 민속신앙을 통해 표출됐다. 구전설화와 민담은 민속신앙 속 영혼의 세계에 대한 상상을 민중에게 전달하는 주된 방편이었다. 오늘날 내세에 대한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가 담당하는 역할을 과거에는 구전설화와 민담이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던 내세에 대한 이런 믿음과 관심은 비록 이교적이었으나, 구한말 개화기에 북미 지역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입국해 활동할 때 복음 전파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을 주었다.

고려 말과 조선조 성리학자들은 괴력난신을 멀리하다 못해 멸시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이 인정한 영혼에 대한 교설은 죽음 이후 이 땅에 얼마 동안 남아있는 조상신에 대한 가르침 뿐이었다. 이처럼 현세중심적이었던 성리학자들은 이 땅에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기독교 교리가 전파되었을 때, 유일신론이나 영원에 이르는 내세관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깊은 성리학 지식을 갖지 못했던 한반도 민중은 유교 이념에 따라 조상신을 섬기면서도 괴력난신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도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내세와 영혼의 세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이들이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내세와 영혼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존재했다. 과거 민속신앙 잔재들이 기독교 신앙에 유입되어, 이교적이거나 이단적인 믿음과 관행으로 발전되는 부정적 토착화 현상이 발생했다.

오늘날 내세와 관련된 한국의 판타지 드라마를 보면, 과거 한국 교계 내부에 발생했던 이 부정적 토착화 현상이 대중문화 분야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기독교계 내부에서 발생했던(혹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순전한 복음과 이교적 종교관념의 혼합은 목회의 중대 위협요소다. 그런데 이런 이질적 종교문화의 혼합이 문화예술 창작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대단히 흥미롭고 참신한 영감을 주는 현상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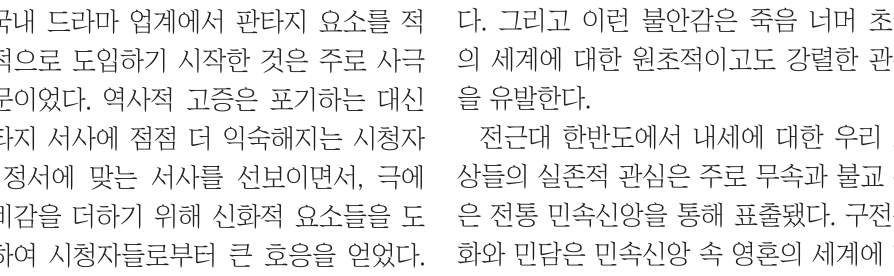
〈지옥에서 온 판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작된 내세에 대한 드라마 가운데 가장 다양한 종교들의 가르침과 관념들을 섞어놓은 서사를 선보인다. 로마 신화, 무속과 불교가 혼합된 한국 민속 신화나 설화, 성경의 천사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근대 유럽의 이단적인 악마학 서적인 흑마법서 레메게톤의 내용까지 이 드라마의 서사 속에 모두 총망라되어 있다. 이런 서사가 대중에게 남기는 기독교에 대한 인상은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탕을 둔 진지한 신앙 정신과 정밀한 교리 지식이 고대 신화나 무속, 혹은 이단적 마술서와 동격의 판타지와 다름없다는 인상을 심어준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장르문학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내 대중문화 업계 동향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품에 진중한 철학이나 세계관을 담아 전달하기보다, 오로지 독자의 소비를 유도하는 데 혈안이 된 장르문학 작가들 입장에서 성경은 돈벌이의 재료가 될 '아이디어 창고' 취급을 받는다.

그들의 눈에 성경은 외도서나 전래설화와 큰 차이가 없는 고대 종교문헌으로 비쳐진다. 즉 대중에게 친숙한 판타지 서사의 소재를 수급해주는 창작 레퍼런스 가운데 하나로 비쳐질 뿐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장르문학 소비자들을 통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나가는 중이다. 〈계속〉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청빙

1974년 11월 24일 미조리 세인트루이스에 설립된 저희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며,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역사하고,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저희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며, 지역사회 전도와 열방 전도에 힘쓰고자 하는 참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역에 헌실할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 성도들의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실 분
-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여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실 분
-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
-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전도에 열정을 가지신 분

지원자격
1. PCA 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대학원(M. Div)를 졸업하고, 3년 이상 목회 경력이(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으로 55세 이하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또는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4.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 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졸업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각 1부
3.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소명, 목회경험, 배우자의 역할, 가족소개) 1부
4. 목회 계획서 1부
5. 최근 6개월내 설교 2편(영상 File)
6. 추천서(추천인이 직접 우편이나 이메일로 송부) 1부

서류제출 마감일 : 2024년 11월 14일(목)까지

제출처
주 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세인트루이스 한인제일장로교회)
(Attn : 청빙위원회) 3350 Adie Rd. St. Ann , MO 63074
e-mail : STLFKPC3350@gmail.com

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상기 주소 이메일로만 접수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 합니다.
3. 추천인의 연락처를 보내 주시는 추천서 또는 이메일에 기재 바랍니다.



세인트루이스 제일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http://www.stlfkpc.org)

“선교 초기 선교사들, 복음화 · 지도자 양성 힘써”

‘에큐메니칼 선교 연구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연동교회(담임 김주용 목사)에서 ‘성공이 아닌 섬김’이라는 주제로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예배 및 에큐메니칼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에큐매니칼 선교 연구회’는 미국장로교(PCUSA), 연합감리교회(UMC), 호주연합교회(UCA), 미국연합그리스도의교회(UCC) 교단이 대한민국에 파송한 목회자들이 결성한 단체다.

이날 행사에서 기념예배에 이어 에큐메니칼 선교 세미나가 열렸다. 제목은 ‘미국장로교 한국선교 역사의 기여-에큐메니칼 운동과 교육 선교 중심으로’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최영근 교수가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의 교육 선교’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최 교수는 “한국 기독교 선교사는 초창기 복음전도, 교육과 의료 선교를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했다. 미국 북·남 장로교의 교육 선교 전략은 ‘불신자에겐 전도하고, 신자에겐 교육하자’를 기치로 내세우며,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도자 양성에 힘썼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남장로회는 복음전도에 집중하는 미국 북장로회와 달리 복음전도, 교육, 의료 선교사의 비율이 골고루 분배됐을 정도로 교육 선교에 집중했다”며 “남장로회의 교육 선교를 이끈 사람은 윌리엄 린튼 선교사로, 남장로회는 교육과 의료를 전도의 영역에 포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10년 이전까지 미국 선교부는 미션스쿨의 교육과정 구성을 주도했으나, 을사조약이 체결된 1910년 이후 일본은 사립학교 개정안(1915년) 등 조선교육령 개정을 통해 미션스쿨 내 성경교육과 예배를 금지하려 했다”며 “또한 미션스쿨에서 미국 선교부가 양성한 교사를 채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도 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일제의 식민화 도구 중 하나는 교육이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교육 목적은 복음화였다. 교육의 목적을 근대화로 여겼던 한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당대 미션스쿨은 복음화 및 시민의식·자유민주주의 함양 등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 일조할 지도자 양성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는 “미국 남장로교회는 ‘한국 사회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교육’이라며 소속 미션스쿨 10곳 중 2곳을 ‘지정학교’로 지정해, 인력·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 전문화를 꾀했다”며 “이는 세속주의자와 일제 천황 숭배자를 양성하는 데 국한됐던 일제 공립학교와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미션스쿨에도 신사참배 강요의 물결이 닥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미국 북장로회 내부에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폐교하자는 주류(사뮤엘 마펫·윌리엄 마튼 베어드 선교사)와 하나의 종교 형식으로 신사참배를 하면서 미션스쿨을 운영하자는 비주류(호러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 입장이 충돌했다”고 했다.

최 교수는 “결국 미국 북장로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기독교의 원칙을 고수한 교육선교를 지향해야 한다며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폐교를 선언했다”며 “미국 남장로회는 이견 없이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기독교의 원칙을 지키는 한에서 교육선교를 해야 한다며 폐교를 선언했다”고 했다.그는 “1938년 미국 남장로교 윌리엄 린튼 선교사는 폐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릴 멈추게 하신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날이 온다. 그날을 바라며 멈춰진 이 자리에서 힘차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며 “그리고 해방 이후인 1946년 11월 린튼 선교사는 한국에 복귀하며 쓴 편지에 ‘일제가 우리의 길을 막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여셔서 선교를 시작한다’고 했다”고 했다.



장신대 최영근 교수 @노형구 기자

특히 “미국 남장로회는 일제로부터의 강탈을 예방하고자 1924년 학교 재산을 남장로회 이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당시 남장로회의 재단법인 대표는 타마자(John Van Neste Talmage) 선교사로 전시 체제에 돌입한 일제로부터 학교 재산을 양도할 것을 회유받았다”며 “하지만 이를 끝까지 거부한 타마자 선교사는 결국 투옥됐다. 1937년 남장로회 소속 미션스쿨들은 모두 폐교가 결정됐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미국 남장로회가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인 1946년 미국 남장로회는 대한민국에 복귀하면서 당시 시가로 100만 불에 육박했던 학교 재산을 기초로 현재의 한남대학교를 세웠다”고 했다. 그는 “선교사들은 해방 이전 일제 치하 때 실행했던 중등교육 수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교육 선교를 새로 시작한 것”이라며 “선교사들이 신사참배의 강요에 무책임하게 도피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해방 이후의 미래를 내다보며 더 높은 선교사역을 추구하고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한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현재의 한국의 기독교 학교들도 굳건히 기독교적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도자 양성에 힘쓴 선대 선교사들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남대는 지역 내 한국교회 130개로부터 장학금 등 재정지원을 받았다”며 “기독교대학이 기독교 정신이 녹아든 수준 높은 교육을 이행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다방면에서의 한국교회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알제리, ‘신앙 흔들기’ ‘불법 예배’ 등 혐의로 기독교 박해

알제리에서 예배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법률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국제 ADF)이 최근 개최한 한 행사에서 알제리 기독교 지도자인 유세프 우라흐만(Youssef Ourahmane) 목사는 당국에 강제로 폐쇄한 복음주의 교회를 다시 개방하라고 촉구하며 종교 자유를 강조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우라흐만 목사는 학생 시절 기독교로 개종했고, 30년 이상 교회를 이끌어 왔다.

소위 ‘불법 예배’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경험을 나눈 그는 “우리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2019년까지 알제리 복음주의 교회가 대부분 문을 닫았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건물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여겼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상실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법적 어려움과 개인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확고부동하다. 투옥을 감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하나님은 제 머리카락 수를 아시고, 그분의 뜻 없이는 머리카락 한 올도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받아들여야 한다. 난 그분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증거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2023년 7월 2일, 유세프 목사는 알제리에서 임마누엘 교회를 이끈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0만 알제리 디나르(약 103만 원)를 선고받았다. 2023년 11월 그의 징역은 1년으로 감형됐으나, 티지 우주의 항소법원은 올해 5월 그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집행유예 6개월을 추가했다.

국제 ADF 세계 종교자유수호 책임자 켈시 조르지(Kelsey Zorzi)는 행사에서 “알제리는 복음주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유세프 목사 건은 지난 몇 년 동안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약 50건의 거짓된 사건 중 하나다. 그는 수감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의 전체 복음주의 교회를 수년간 옹호해 왔다”고 했다. 국제 ADF는 유세프 목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비정부기구와 협력하고 있으며, 40개국 이상의 정부 관리들에게 그의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르지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불법적인 교회 폐쇄와 목사들의 부당한 체포 및 투옥에 맞서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 4,300만 명의 인구 중 99%가 수니파 무슬림으로 알려진 알제리는 소수종교인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ADF에 따르면, 정부는 기독교인과 다른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성모독 및 반개종 조례를 포함해 종교 자유와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당국은 2019년 이래 EPA(Église Protestante d’Algérie)에 소속된 43개 교회를 강제로 폐쇄했고, 단 1개만 개방했다. 내무부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보안 경찰은 ‘건강 및 안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교회 문을 잠그고 내부 예배를 불법으로 선언했다. 유세프 목사는 2008년부터 평화로운 기독교 활동으로 근거 없는 형사 고발을 당했다. 그는 ‘무슬림의 신앙 흔들기’, ‘불법 예배’ 또는 ‘십일조 횡령’과 같은 모호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50명의 기독교인 중 한 명이다.

유세프 목사는 “1970년대 정부는 대부분 외국인으로 가득 찬 교회에 허가를 줬다”며 “오늘날 정부는 우리 교회가 거의 전부 알제리 개종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단속 조치는 소규모 가정 모임에도 영향을 미쳤다. 21윌버포스는 “정부는 한 모임에 10명만 모일 수 있도록 해 많은 가정교회를 지하교회로 만들었다. 알제리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교회 지도자들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에 의해 체포 및 기소됐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미주 기독일보 후원

한국 혜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진료하는 서울동부지역 으뜸병원, 혜민병원

혜민병원은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큰 행복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검진내용

- CT 촬영(뇌, 폐 선택)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혈액 췌장암 CA19-9
- 갑상선 검사 (TSH,T3,T4)
- 수면 대장내시경
- 수면 위내시경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골밀도
- 70개의 기본검사
- 경동맥 초음파
- 뇌 MRI

검진비용

~~$950~~ **$45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3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양도 양수가능)



종합건진센터 이성수 소장

새 생각, 새 의술
혜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문의전화 T.(213)341-5123